원수를 사랑할 순 없다!?

(눅6:27-36)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순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순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말을 들이대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의 이 원수는 마치 어떤 말씀과 같은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병자에게 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생각 속에서의 그 의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원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테두리와 경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원수라고 말하는 그 원수는 실지로는 원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쉽게 원수가 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여간 이 원수라는 개념에 완전한 혼동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또 '사람의 원수가 바로 제 집안 식구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사람이 그 아들과,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가족은 원수 삼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은 실지로는 원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이 나갈 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마귀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요, 사람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이 아담은 원수인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신뢰와 동의와 동행,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주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동행합니다.
마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 세상은 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진짜 원수인 마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와 동행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실제로는 원수가 아닌데 사람을 원수 삼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수인 마귀는 사랑하고 동의하고 동조하고 동행하면서 실제로는 원수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을 원수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첫 번째 아담 다음에 태어난 1세가 사람과 사람끼리 원수 삼으면서 죽여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람을 원수 삼는 일입니다.
반면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의 모습, 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스테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자리에 원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원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원수로 보이고 원수로 느껴지고 원수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사함 받게 되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원수 마귀를 사랑하고 있고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 사람이 밉다면 내가 지금 원수 마귀와 동행하고 있고 원수인 마귀

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수사랑 한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사랑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원수사랑은 세상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 죄인들도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느니라'
이 죄인들이라는 말이 자연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세상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의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죄인들, 아담의 후예들, 원수인 마귀를 사랑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원수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념대로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거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원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수가 내게 원수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원수의 개념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내 원수가 됩니까?
본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나를 괜히 미워합니다, 나로서는 납득이 안 가게 나를 미워합니다.
또 조금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원수이죠.
그 다음 28절에 저주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또 나를 모욕하는 자도 원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땅바닥을 내다 꽂습니다.

또 뺨을 치는 자, 원수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 내 물건을 강탈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 다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수가 다 그런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 이것도 원수입니다.
과장님한테 부장님이 원수인 이유가 뭡니까?
자꾸 와서 시켜요, 근무 외의 일들을 자꾸 시킵니다.
원수가 부장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원수들을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원수라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원수가 아니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고 원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짚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자들, 내게 뺨을 때리고 내게서 재산을 강탈해 가는 이 자들이 원수가 아닙니까?
바로 앞의 부분과 이어지는 겁니다.
앞의 부분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고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돈이 마음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라는 얘기에요.
돈은 많지만 돈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저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께 마음이 다 가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완성하기 이전인 지금 배부른 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경우에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웃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어 하늘에 마음이 가기 전에 하늘이 없는데도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있는 자, 이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원수사랑은 우리가 못해요, 내 재산을 빼앗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원수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못합니까?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세상과 접해있는 십자가 저편에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이편 세상 안에서는 내게 위로꺼리가 없고 만족꺼리가 없고 기쁨꺼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기뻐할 일도 없고, 이 세상 것 어떤 걸 갖더라도 만족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안 갖고 있다고 불만족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을 달래주는 위로감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위로꺼리가 없는 세상, 만족꺼리가 없는 세상, 기뻐할 이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내게 누가 감히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내게 원수가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될 때에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가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 가있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과의 교통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위로꺼리가 안 될 바에는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것이 내게 무슨 걱정이고 근심이고 화날 일이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재산이 내게 위로꺼리가 되고 만족꺼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될 때는 내 재산을 갖고 가는 자가 원수가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 저편으로 넘어가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고 세상 저편에 있는 아버지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있고, 오직 하나님아버지 보좌만을 소망하고 있을 때에 내 재산을 강탈해간 자가 어떻게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재산이라는 게 내게 위로꺼리도 안 되고, 만족꺼리도 안 되고, 기쁨의 이유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오늘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차별화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서 원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아버지의 아들들의 특징이요 차별화 된 모습이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마음이 아버지께 가있는 자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측근,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등 돌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있어서 하나님만이 위로의 이유요, 하나님만이 만족의 이유요,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세상의 경계 안에서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만족과 기쁨꺼리가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가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많이, 어느 정도로 깊이 하나님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과 천국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느끼듯이 얼마나 깊이 그것을 느껴 가느냐가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과제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께서 많이 역사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느끼느냐, 얼마나 깊이 천국을 느끼느냐,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느냐, 여기에 인생의 과제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저들이 지금 나 스테판의 몸을 돌로 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라고 느끼

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아프게 당하고 있는 것은 저들을 원수 삼을 이유가 안 되는 게 지금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누군가가 밉고 괘씸하고 누군가가 잘못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원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아담과 똑같이 진짜 원수인 마귀를 신뢰하고 추종하고 마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수인 마귀를 사랑할 때, 진짜 원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사람을 원수 삼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원수마귀에요.
그래서 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데, 가족만큼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안 식구를 원수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수라는 얘깁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십자가 칼로 끊어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아버지께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운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저편에 이 세상과 접하기 위해 가까이 온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간 자들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원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이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내게서 빼앗아가도 그는 내게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탄, 마귀만이 원수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일본, 독도, 36년 식민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독도 문제는 일본을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하나님께서 독도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든 문제에 내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 끼셔서 움직이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그들을 보면서 내 행동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 삼으면 나는 진짜 원수인 마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십자가 너머 저편으로 내 마음을 집어넣는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는 위로꺼리가 없고 만족꺼리가 없고 기쁨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도 사람인 한 내게 원수가 될 수 없는 그런 강철 같은 하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보좌가 펼쳐있는 아버지 앞으로 가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돈 벌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을 위한 노력 대신에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깊이 느끼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원수가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시고, 진짜 원수인 마귀를 십자가로 언제나 눌러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